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3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8)	봉헌 (220)	성체 (161)	파견 (175)
---------	---------	----------	----------	----------

제1독서 | 창세 18,20-32

화답송 | 시편 138(137),1과 2나.2가다과 3.6-7가다.7라-8(◎ 3가 참조)

-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 콜로 2,12-14

복음환호송 | 로마 8,15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음 | 루카 11,1-13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7/28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8/4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8/11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8/18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1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25	\$75	\$8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20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8/24	유 요한/ 유 마리아
7/27	손 아놀드/ 손 쟈마	8/31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8/3	이 글라라/ 장 글라라	9/7	홍 마르코/ 홍 아녜스
8/10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9/14	김 요아킴/ 고 안나
8/17	이 요한/ 이 마틸다	9/21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8월 1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8월 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결정 되었습니다

평협회장: 유요한, 총무: 김마론, 재무: 이그레이스

전교: 장클라라, 전례: 박바오로, 홍보: 박벨라렛다

구역장: 김헬레나, 고안나

남가주 성령대회(8/18-19) 티켓 판매(\$20)

남가주 성령대회가 8/18-19 에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성당에서 50% 비용을 부담 합니다. *티켓 구매: 박 벨라렛다 자매님(홍보)*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7/26 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이 우리 신부님의 영명 축일 이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

-김미희 마리스텔라 |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한국지부 부회장-

미국에서 제법 성공한 사업가인 친구가 지난해 중학생 시절 은사 수녀님이 몹시 그림다고 했습니다. 제 오지랖이 발동,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수녀님 찾기에 나섰습니다. 친구의 가슴속에, 수십 년 세월에도 퇴색하지 않은 큰 사랑을 심어놓으신 분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부산 수녀원에 계신 은사님을 찾았습니다. 최근 그 친구에게 너무도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를 걱정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행을 권유, 은사 수녀님을 뵙는 위로 여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수녀님의 금경축 기념일이 있는 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수녀님 품 안에서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사회적 성취와 부는 얻었지만 늘 슬프고 외롭고 불행해요”라는 제자에게 수녀님은 ‘하느님 안에 살기’를 권하시며 사랑으로 기도해주셨습니다. 한때 개신교에 열심이었던 친구는 지금 자기가 가장 원망하는 대상이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라며 주님께 대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명랑 수녀님’ 이해인 수녀님과 만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집에 아기자기 스티커 장식과 덕담까지 더해져 정성스레 사인을 해주신 수녀님과 한 시간여 웃고 울다가, 돌아가며 시 낭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메어 낭송을 잊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수녀님은 이시를 낭송해주셨습니다.

“슬픈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가쁜 손잡아 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주세요요...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 시구는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당부 같았습니다. 헤어질 때 친구는 은사 수녀님께 새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라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오전, 친구와 함께 미사에 참석 후 한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수녀님은 ‘다 가진 것 같지만 텅 빈’ 친구의 마음을 보시고 하느님을 찾으라고 당부하시며 기도해주셨습니다. 도착 다음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딱 한 번 뵈적이 있던 한국 신부님께 1시간 30분 차를 몰아 달려갔다고 합니다. 쉬시는 날이었지만 신부님은 오랜 시간 친구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는 숙제를 내 주셨다고 합니다. 마태오 복음서 5장을 일주일간 읽고 묵상한 다음 다시 만나자고. 일주일 후, 친구의 얘기에 이번엔 제 눈가가 흠뻑 젖었습니다.

“내 영혼이 평생을 갈구해온 행복이 바로 거기,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있더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될 수가 없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멀고 먼 길을 돌아왔어. 이제는 내 아이도 가족도 사업도 남은 삶도 하느님께 맡길 수 있을 것 같아.”